대한민국 제도약의 힘, 창조경제

경제혁신
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 http://www.motie.go.kr

**2015년 10월30일(금) 석간부터**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0.30일(금) 오전 6시 이후 보도 가능)

문의 : 전력진흥과 김성열 과장(044-203-5260), 조영길 사무관(044-203-5267)

# 구역전기사업, 분산형 전원의 대표선수로 키운다

## - 산업부, 구역전기사업 간담회 개최 -

◇ **수요반응·신재생에너지·AMI 등 접목, 에너지신산업 플랫폼으로 활용**
◇ **에너지 자립을 지향하는 마이크로그리드로서의 경쟁력 확보 추진**

## 1. 간담회 개요 및 개최 배경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10.30일(금) 서울에서 구역전기협회장, 10개 구역전기사업자 대표 및 관련 전문가 등 15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**구역전기사업 활성화 방안**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가 열렸다.

< **구역전기사업 간담회 개요** >

◈ 일시/장소 : '15.10.30.(금) 08:00~10:00, 서울
◈ 참 석 자 :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, 구역전기협회장 및 사업자 대표 등
◈ 주요내용 :
- 수요반응·신재생에너지·원격검침 인프라(AMI) 등 접목을 통한 에너지신산업 플랫폼으로 활용
- 분산전원과 마이크로그리드로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

○ 이번 간담회는 온실가스 감축, 전력공급의 안정성, 소비자 서비스 강화, 전력인프라 건설비용 회피 등 다양한 측면에서 **분산전원*으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구역전기사업을 재조망**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, 지난 **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밝힌 분산전원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.**

* 분산전원(distributed generation):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①소규모 발전설비와 ②적정규모의 수요지 발전설비를 분산형으로 정의(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)

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신산업



○ 아울러, 최근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다양한 요소기술과 서비스를 구역전기사업에 접목해 구역전기사업을 신**산업의 플랫폼이자 대표적 마이크로그리드로 육성하는 방안**이 간담회에서 논의했다.

## 2. 구역전기사업 개요 및 현황

□ 구역전기사업은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에 맞추어 일정규모(35MW)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전기를 생산, 해당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.(전기사업법 제2조)

□ 현재 구역전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18개 사업자(지역냉난방 10, 산업단지 8)는 전기뿐만 아니라 열도 함께 공급하고 있다.

* 지역냉난방사업(10사업자, 13구역) : 한난(가락한라APT, 동남권유통단지, 상암, 고양삼송), 부산정관에너지(부산정관), 짐코(사당극동APT), 삼천리(광명역세권), 대성에너지(대구죽곡), TPP(양주고읍), 중부도시가스(천안청수), 충남도시가스(대전하학) 등

*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(8사업자, 8구역) : 한주(울산미포), 여천NCC(여수), 대구[illegible]색산[illegible]공단(대구), 삼성토탈(여수), 씨텍(서산), LG화학(여수) 등

## 3. 간담회 진행

□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"구역전기사업은 온실가스 감축, 전력망의 안정성 강화, 에너지 신산업 육성이 시대적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역할의 강화가 필요하다."고 강조했다.

○ 특히, 저탄소 발전원을 가지고 있으며, 구역내 배전망도 갖춘 독립적 계통운영자로서 **구역전기사업자가 마이크로그리드산업의 핵심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**

○ 아울러, 수요반응, 신재생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스마트미터(AMI) 등 **에너지 신산업의 다양한 요소를 담아내 구역 내 전기소비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**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.

□ 간담회에 참석한 삼정회계법인의 장현국 이사는 구역전기사업은 **발전과 판매의 겸업이 허용되어** 자체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구역에 판매하므로 대규모 송전망이 불필요한 **대표적 분산형 전원**이라고 말했다.

에너지에서 찾은 미래 에너지신산업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0-30 10:25:42

○ 또한, 사업자가 독립된 소규모 전력망으로 운영하고 있어 **마이크로그리드 구축과 에너지 신산업의 최신기술을 적용**하여 소비자의 만족을 높이고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최적의 공간이 될 것으로 발표했다.

□ 구역전기사업자들은 대형 발전기보다 불리한 연료비, 소매요금의 다양성 부족, 열 부문 적자 심화 등 **사업수행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**하고, 구역전기사업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이에 대해 **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**을 제시했다.

○ 이와 함께, 업계는 에너지 신산업의 다양한 요소를 결합시켜 사업모델을 혁신하고, 열과 전기의 회계분리, 열수요 발굴, 사업의 전문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## 4. 향후 계획

□ 향후 정부는 구역전기사업을 **분산 전원의 핵심**으로서 전력망과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**마이크로그리드의 대표 형태로 육성**하고, 혁신적 기술과 서비스가 융합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기로 했다.

○ 구역전기사업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강화해 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촉진하고, 전기저장장치(ESS)·스마트미터(AMI)를 활용하는 수요반응 참여와 에너지 컨설팅 사업 실행을 지원한다.

○ 또한, 한전 요금보다 전체적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요금제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, 태양광 등 구역 내 분산자원을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자원 중개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도 앞으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.

□ 앞으로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역전기 사업이 분산전원으로서 강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, **자생력 확보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***을 수립·시행하기로 했다.

* 스마트미터(AMI) 보급, 전력거래 조건, 요금제 다양성, 수요반응 사업 실시, 연구개발(R&D) 등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진흥과 조영길 사무관(044-203-526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**붙임** **구역전기사업 간담회 계획**

## 1. 간담회 개요

○ **(주제)** 분산전원으로서 구역전기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

○ **(일시/장소)** '15.10.30.(금) 08:00~10:00 / 서울

○ **(참석)**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, 구역전기협회장 및 사업자 대표 등

○ **(진행순서)**

| 구분 | 시간 | 발표주제 | 발표자 |
|---|---|---|---|
| | 08:00~08:05 (10) | 인사말씀 |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 |
| 발표1 | 08:05~08:15 (10) | 구역전기사업의 분산전원 잠재력과 에너지신사업 플랫폼으로 활용 | 삼정회계법인 |
| [illegible] | 08:15~08:25 (10) | 구역전기사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 | 구역전기협회 |
| | 08:25~10:00 (95) | 구역전기활성화 방안 논의 | |

## 2. 주요 참석자

| 성명 | 소속(직책) | 공급구역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조용선 | 티피피 (대표이사) | 양주고읍지구 | 협회 회장 |
| 김병수 | 중부도시가스 (대표이사) | 천안청수지구 | 협회 부회장 |
| 최성용 | 부산정관에너지 (대표이사) | 부산정관지구 | 협회 이사 |
| 강병일 | 삼천리 (부사장) | 광명역세권지구 | 협회 감사 |
| 강석기 | 대성에너지 (대표이사) | 대구죽곡지구 | |
| 이홍열 | 한국지역난방공사 (본부장) | 가락한라APT, 동남유통권, 상암2지구, 고양삼성지구 | |
| 박진상 | 짐코 (전무이사) | 사당극동APT | |
| 장현국 | 삼정회계법인 (이사) | | |



최미화 / 홍보담당관 / 2015-10-30 10:25:42